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삼보모터스(053700)

운송장비·부품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작성자

양기보 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215-275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보모터스(053700)

자동변속기 구성 부품 및 파이프류 제품 등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기업

기업정보(2021/09/14 기준)

대표자	이재하
설립일자	1987년 9월 25일
상장일자	2001년 11월 6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주요제품	자동변속기 부품, 파이프류 제품 외

시세정보(2021/09/14 기준)

현재가(원)	7,03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323
발행주식수(주)	18,823,896
52주 최고가(원)	8,860
52주 최저가(원)	5,850
외국인지분율	-
주요주주	이재하, 삼보에이엔티(주), (주)보고파워, 삼보프라텍(주)

■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기업

삼보모터스(주)는 1987년 9월에 설립하였으며, 2001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고, 2015년 6월 중속회사인 삼보홀딩스(주)와 합병을 진행하였다.

유팩스캠(주)(플라스틱필름 제조), Carlsson Fahrzeugtechnik GmbH(자동차튜닝), (주)ACE기연(자동차 부품) 외 6개 기업을 중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 및 금형을 생산, 판매하고 있어 다수의 국내 외 업체에 금형을 납품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스탬핑, 튜빙, 기어 박스 등 다양한 플라스틱 및 금형 기술 보유

주요제품은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구성 부품, 자동차 파이프류 제품, 자동차 용 범퍼, 계기판, 필터 등의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 및 금형으로 공장 자동화와 엄격한 품질보증체제 구축을 통해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 정부의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및 자율주행차 성장으로 수혜 전망

정부는 미래차산업 발전 전략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기술 개발부터 자금 지원, 인력 양성 등에 이르는 다각도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 미래사업 수소 및 전기 자동차에 대한 생산 수요 증가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보모터스(주)는 K-스마트등대공장에 선정되어 스마트공장을 구축 지원 받으며, 자동차 엔진 및 내부 순환계통 부품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기자동차 부품을 제조 생산하여 사업 신장이 기대되고, 현대, 기아 자동차 7개 차종의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커버를 제조, 공급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9,459	0.77	130	1.37	43	0.45	2.08	0.60	248.72	283	13,858	25.80	0.53
2019	9,395	-0.68	-107	-1.14	-155	-1.65	-7.41	-2.14	271.07	-914	12,673	N/A	0.41
2020	9,416	0.22	162	1.72	-112	-1.19	-3.12	-1.47	299.27	-366	12,042	N/A	0.53

기업경쟁력

특허경영

- 특허권, 디자인권 등 다수 지식재산권 보유
- 자동차 연료시스템의 필터백 장치 등

축적된 기술 선점과 점유율 확대 전략

- 자동차 자동변속기, 범퍼 등 다품목 제조 기술 보유
- 자율주행차 모듈용 금형 개발로 시장점유율 확대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자동차 변속기, 범퍼, 계기판 등 제조 기술 보유
- 자동차용 금형 설계 및 사출 공정 기술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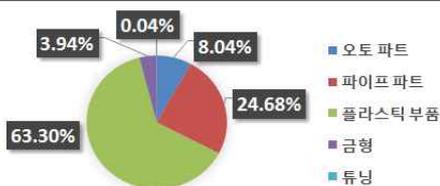
적용제품

- 스탬핑
- 튜빙
- 기어박스



매출비중

- 제품군별 매출비중(2021년 반기)



시장현황

시장내 경쟁력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기업 이외에도 그 외 다수 국내외 거래처 확보
-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생산경쟁력 향상
- 자율주행차 모듈, 센서용 금형 설계 기술 보유

최근 변동사항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 권역별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 GVC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전략품목 육성
- 스마트공장, 디지털트윈 등 스마트공정으로 전환

공장 전환 및 자율주행차 수혜 전망

- K-스마트등대공장 선정으로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 자율주행용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커버 제조하고 있어 사업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전망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SG	Issue	Action
 ENVIRONMENTAL	- 에너지·온실가스 이슈는 많지 않은 편 - 환경경영전략 - ESG 경영 세계적 이슈	- 친환경사업팀 운영 및 환경 및 안전보건 자체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로 친환경 생산과 소비에 기여 - ISO 14001 기반 '환경안전관리' 규정 준수 - ESG 동향조사, 도입시기, 조직구성 등 검토
 SOCIAL	- 장비 특성상 높은 신뢰성과 품질안정성 요구 - 일자리고용 등 사회적 책임 활동 - 사회공헌활동	- ISO 45001, IATF 16949 인증 기반 경영시스템 구축 - 지속적인 고용, 기간제 근로자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 등 고용노동부에 강소기업 인증 - 삼보문화재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문화 발전 이바지
 GOVERNANCE	- 지분구조의 안정성 -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채널 다양성 확보 -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투명한 제도	- 책임과 권한을 갖는 형태의 지배주주 경영 - 일부 사회적 활동만 비주기적으로 공개 -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의 높은 부품제조 기술지식 보유로 명확한 사업목표를 설정하여 경영 중

한국기업데이터(주)의 ESG 평가항목 기반 자체 데이터, 언론자료 및 제출자료 등을 통해 Issue와 Action을 구성하고 이를 SDGs와 연계

I. 기업현황

자동변속기 구성 부품 및 파이프류 제품 등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기업

동사는 자동변속기용 플레이트와 엔진 및 연료시스템용 스틸파이프 부문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품질보증체제 구축으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기술파트너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회사 연혁 및 주요 사업 분야

삼보모터스(주)(이하 ‘동사’)는 제증명서 자동발급기(KIOSK)의 제조, 판매 및 IT 셋톱박스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1987년 9월에 설립하였으며, 2001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이후 2012년 7월에 (주)삼보모토스에서 삼보모터스(주)로 상호 변경을 진행하였고, 2015년 6월 종속회사인 삼보홀딩스(주)와 합병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 3월 최대주주가 이연성에서 이재하로 변동하였다.

동사는 유팩스캠(주)(플라스틱필름 제조), Carlsson Fahrzeugtechnik GmbH(자동차튜닝), (주)ACE기연(자동차 부품) 외 6개 기업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구성 부품 및 자동차 파이프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종속회사는 자동차용 범퍼, 계기판, 필터 등의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 및 금형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타타 자동차, 닛산 등 다수의 국내외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그림 1] 동사의 종속회사



*출처 : 동사 반기보고서(2021년 6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주요 주주 및 대표이사 현황

대표이사 이재하(1954년생, 남, 이하 ‘동인’)는 태창산업(주), 삼협산업(주)을 경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열회사인 (주)프라코, (주)나전 등을 겸임하고 있고, 2010년 8월 동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동인은 약 30년의 동업계 종사기간을 보유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에 대한 풍부한 기술지식을 보유한 기술자이며,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근무환경의 창출을 통해 제품 생산의 선도 기술력 강화 및 차별화된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은탑산업훈장, 2016년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하였고, 2014년 Global Standard Management Awards 최고경영자상, 2017년 EY 최우수 기업가상 등을 수상하였다.

2021년 6월 말 기준 동사의 대표이사 이재하가 지분의 11.67%로 최대주주이고, 각각 삼보에이엔티(주)가 9.01%, (주)보고파워가 8.79%, 삼보프라텍(주)이 6.56%, 에스비솔루션(주)가 2.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대표이사의 장녀 이유경 및 특수관계인 등으로 구성된 지분은 1.42%로,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등으로 이루어진 총합 지분은 39.45%로 구성되어 있다.

■ 글로벌 자동차 수요동향

현대차그룹 글로벌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됐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2021년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대부분 국가에서 완만한 경기 회복으로 2019년 수준까지 돌아가는 데는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관측됐으며, 2021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2020년보다 10.9% 성장한 8,402만 대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누적됐던 대기수요가 실현되면서 시장규모이 회복됐기 때문이다.

[그림 2] 글로벌 자동차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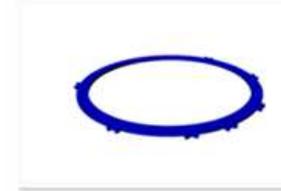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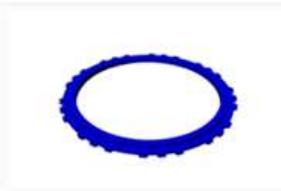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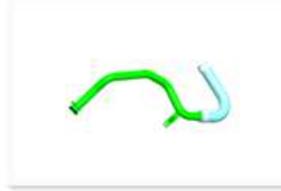
*출처 : LMC, GBIC, 현대차증권,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동사의 주요제품

동사의 주요제품은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구성 부품, 자동차 파이프류 제품, 자동차용 범퍼, 계기판, 필터 등의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 및 금형으로 동사는 공장 자동화와 엄격한 품질보증체제 구축을 통해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 거래처는 현대자동차, 일본의 닛산, 도요다, 혼다 계열의 오토미션 제조업체인 JATCO, DYNAX, NSK WARNER, 미국완성차업체인 GM, CHRYSLER, 자동차부품 회사인 EATON, CONTINENTAL이다.

[표 1] 주요제품

구분	제품군			
스탬핑 파트				6단 변속기Plate
				6단 변속기Plate
튜브링 파트				승용디젤1.6
				승용디젤3.0
기어 박스 파트				

*출처 : 동사 홈페이지,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II. 재무분석

제품 다각화, 해외시장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매출 및 시장점유율 유지 기대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산업회복세로 변화하여 일부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호조가 보이고 있고, 국내 업체의 품질 제고 노력이 글로벌 현지 시장의 점유율 상승 등을 견인하고 있어,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제품을 납품하는 동사 또한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된다.

■ 전방산업 호조로 매출 신장 및 수익성 확대

동사는 1987년 9월에 설립하였으며,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구성 부품 및 자동차 파이프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종속회사는 자동차용 범퍼, 계기판, 필터 등의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 및 금형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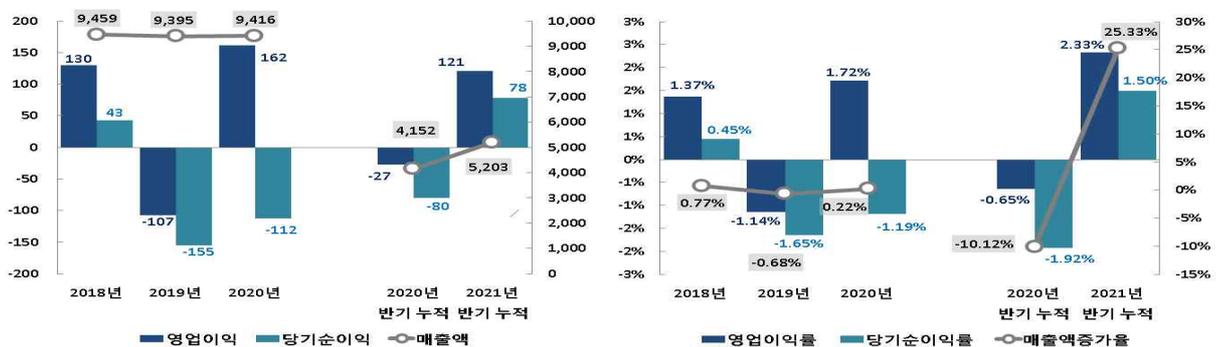
동사의 주요거래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국내 대형 완성차 업체 또는 부품 업체이며, 르노삼성, 타타 자동차, 닛산 등 다수의 국내외 업체에 금형을 납품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3월 중순 이후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차질이 심화되었고, 실물경제에 대한 과장이 커지면서 영향을 끼쳤으며,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 9,459억 원, 2019년 9,395억 원, 2020년 9,416억 원으로 전방 자동차 산업의 부진에도 파이프 파트 부문의 호조에 기인된 것으로 보이나,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은 2018년 130억 원(43억 원)에서 2019년 -107억 원(-155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0년 162억 원(-112억 원)으로 손실 폭을 줄였다.

한편, 2021년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산업회복세로 변화하여 글로벌 시장 호조가 보이고 있고, 국내 업체의 상품 경쟁력 제고 노력이 글로벌 현지 시장의 점유율 상승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2021년 반기 누적 매출액은 5,2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33%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영업이익률)은 121억 원(2.33%)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방산업의 회복세에 맞춘 활발한 사업 활동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 3]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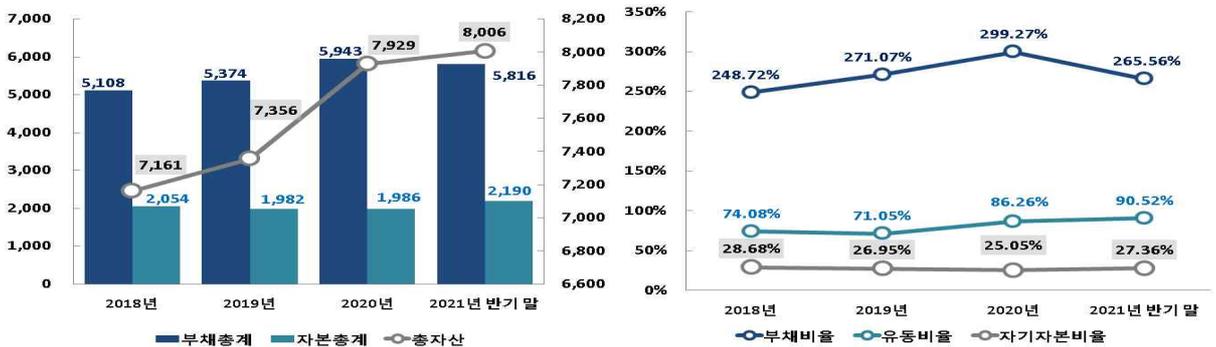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1년 6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높은 부채비율로 유동성 부담이나, 꾸준한 재무구조개선으로 회복 추세

동사는 현금및현금성자산 확보로 유동비율은 2018년 말 74.08%, 2019년 말 71.05%, 2020년 말 86.26%를 기록하였으나, 부채비율은 사업투자활동을 위한 매입채무 및 단기차입금의 증가로 인해 2018년 말 248.72%, 2019년 말 271.07%, 2020년 말 299.27%를 기록하여 높은 차입부채 부담 등 미흡한 재무구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산업회복세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여 수익성을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의 부채 상환의 영향으로 2021년 반기 말 부채비율은 265.56%, 유동비율은 90.52%를 기록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이 2020년 말 대비 개선되었으며, 2021년 반기 말 현재 1,264억 원의 현금성 자산과 1,598억 원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사의 재무구조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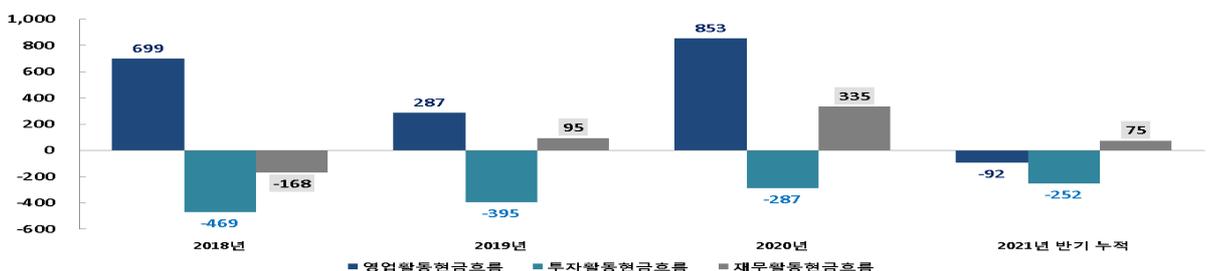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1년 6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영업활동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현금창출능력 보유

동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2019년, 2020년 연속 정(+)의 현금을 창출하고 있고, 동사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유형자산의 취득, 투자금융자산의 증가 등으로 2019년, 2020년 연속 부(-)의 흐름을 나타내었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단기차입금의 증가, 사채의 발행 등의 부채증가의 영향으로 2019년, 2020년 연속 정(+)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2021년 반기 누적 현금흐름을 볼 때, 동사는 투자를 위해 외부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유형자산의 취득 등의 영향으로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기초 대비 260억 원 감소한 1,264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5] 현금흐름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1년 6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Ⅲ.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자동차부품 수출 회복세와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으로 수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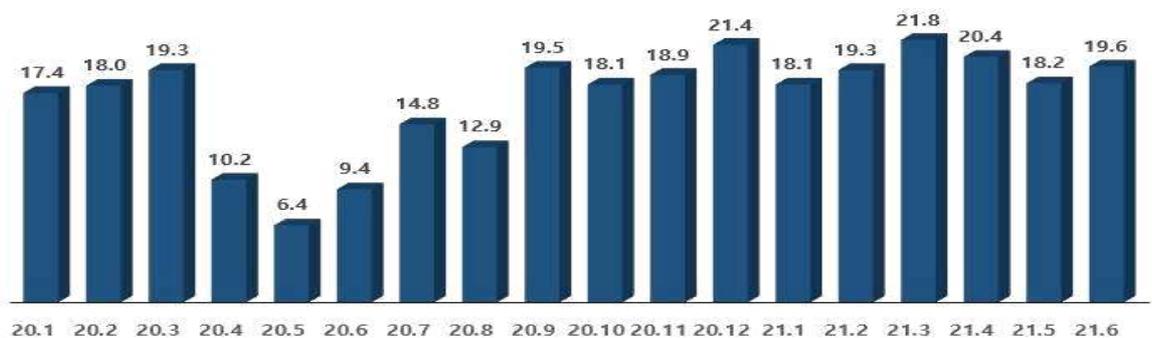
글로벌 시장 판매호조에 따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출을 상회하는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퇴출 위기에 내몰린 내연기관차 부품 업체들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 이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코로나19 이후 자동차부품 수출 회복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및 6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에 의하면, 2021년 상반기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생산 11.5%, 수출 27.9% 증가하였으며, 내수는 2.1% 소폭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였다. 특히, 수출대수는 2012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플러스 기록하였으며, 수출금액은 236억 달러로 2014년 상반기(252억 달러) 이후 최고 실적 달성한 상태이다.

2021년 상반기는 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른 일부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판매호조에 따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출을 8.9% 상회하는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하이브리드차(63.3%), 전기차(13.9%) 등 친환경차(37.1%)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국내 업체의 자동차부품 수출액 추이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부품 수급 곤란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의 상품 경쟁력 제고 노력(현지 전략차종 출시 등)이 글로벌 현지 시장의 점유율 상승 등을 견인하며 수출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미국 내 현대기아 판매량은 2020년 상반기 대비 48.1% 증가하며 각 사 역대 상반기 최다 판매량 기록하였고, SUV가 28.3% 증가하며 수출 강세 지속, 트레일블레이저, 스포티지, 코나 등 소형 SUV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GV 70(2021년 3월~), 아이오닉5 EV(2021년 4월~) 등 신규 차종의 수출호조와 XM3수출 본격화도 금년 상반기 수출 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수출 주력 품목을 SUV 및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등 수출 품목 구조의 고도화가 수출단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시장도 2021년 6월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실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동사 역시 실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으로 기대된다.

■ 정부,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발표

2030년까지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목표를 담은 정부의 미래차산업 발전 전략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퇴출 위기에 내몰린 내연기관차 부품 업체들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부터 자금 지원, 인력 양성 등에 이르는 다각도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림 7]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 ▪ 매출 1조원 글로벌 부품기업 육성 (20년 13개 → 30년 20개) ▪ 1,000만불 수출 부품기업 250개 육성 (20년 156개 → 30년 250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협력을 통한 미래차전환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 고성장·고부가가치·신시장 등 비즈니스 모델 혁신 지원 ▪ 미래차 전환과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수단 확충 		
정책 과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미래차전환 플랫폼 구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 미래차 전환 기획역량 강화 지원 ▪ 연대·협력과 이업종 융합 촉진 </td> </tr> </table>	미래차전환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 미래차 전환 기획역량 강화 지원 ▪ 연대·협력과 이업종 융합 촉진
	미래차전환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 미래차 전환 기획역량 강화 지원 ▪ 연대·협력과 이업종 융합 촉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사업모델 혁신 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차사 전략과 연계하여 고성장분야 진출 ▪ GVC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전략품목 육성 ▪ 미래차분야 신사업 개척 지원 ▪ 글로벌 완성차사, New Player 등 신시장 개척 ▪ 연관산업 생태계의 미래차 대응역량 강화 </td> </tr> </table>	사업모델 혁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차사 전략과 연계하여 고성장분야 진출 ▪ GVC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전략품목 육성 ▪ 미래차분야 신사업 개척 지원 ▪ 글로벌 완성차사, New Player 등 신시장 개척 ▪ 연관산업 생태계의 미래차 대응역량 강화
사업모델 혁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차사 전략과 연계하여 고성장분야 진출 ▪ GVC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전략품목 육성 ▪ 미래차분야 신사업 개척 지원 ▪ 글로벌 완성차사, New Player 등 신시장 개척 ▪ 연관산업 생태계의 미래차 대응역량 강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사업재편 지원수단 확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선도·후발기업 등 유형별 R&D 지원 ▪ (인력) 융합형 선도인력 양성, 재직자 전환 교육 ▪ (자금) 금융·보조금 등 투자인센티브 확충 ▪ (공정) 스마트공장, 디지털트윈 </td> </tr> </table>	사업재편 지원수단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선도·후발기업 등 유형별 R&D 지원 ▪ (인력) 융합형 선도인력 양성, 재직자 전환 교육 ▪ (자금) 금융·보조금 등 투자인센티브 확충 ▪ (공정) 스마트공장, 디지털트윈 	
사업재편 지원수단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선도·후발기업 등 유형별 R&D 지원 ▪ (인력) 융합형 선도인력 양성, 재직자 전환 교육 ▪ (자금) 금융·보조금 등 투자인센티브 확충 ▪ (공정) 스마트공장, 디지털트윈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자동차산업은 최근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 강화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등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전동화·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사업기회가 새롭게 창출되는 반면, 내연기관 엔진이나 동력전달 부품 수요는 그만큼 빠르게 감소하면서 사양 산업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차 부품산업이 2016년부터 정체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사업 전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종합 대책을 세워 일자리, 생산기반 유지 확대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 국가와 자동차 기업들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및 친환경 자동차 전환을 선언했고,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전 세계 무공해차 판매량은 2017년 74만 대에서 2020년 203만 대로 불과 3년 만에 약 세 배나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그린뉴딜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무공해차 보급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 중이고, 구매보조금 지원과 충전기반 시설 구축,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 보급실적 기준으로 전기차는 세계 8위, 수소, 전기차는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그리고 충전 수요가 높은 차고지, 직장 등 주요 이동거점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50만 기 이상 구축함은 물론, 수소충전소도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 도달 가능하도록 450기 이상 구축해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개편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동사는 미래사업 수소 및 전기 자동차에 대한 생산 수요 증가에 따른 자동차 부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의 미래차 전환 지원에 따라 신제품 개발로 사업 동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K-스마트등대공장 선정 및 바이두 아폴로 탑재 등의 영향으로 사업 신장 기대

동사는 총 3년간 최대 12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K-스마트등대공장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생산공장 및 설비에서 AI 스마트공장 전환을 위한 스마트화 수준, 제조 기술 및 공정 분석, 성장 가능성을 진단하여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4차 핵심기술이 적용된 지능화 솔루션 적용을 통해 공정 최적화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스마트공장을 구축 지원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동차 엔진 및 내부 순환계통 부품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기자동차 부품을 제조 생산하여 사업 신장이 기대된다.

[그림 8]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또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70개 이상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600개 이상 모델에 자율주행 플랫폼인 아폴로 적용하고 있는 중국 IT기업 바이두와의 계약을 진행하여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사는 현대, 기아 자동차 7개 차종의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커버를 제조, 공급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자율주행 모듈에 대한 플라스틱 제품 및 금형 부품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여 사업 변화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9]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출처 : 구글 이미지

■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업부설연구소 중심의 역량 강화

동사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1996년 7월부터 운영 중인데, 기업부설연구소는 개발1팀, 개발2팀, 설계시험팀, 친환경사업팀, 연구개발1, 2, 3팀으로 구분되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3개년(2018~2020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평균은 1.07%이며, 기술 개발의 성과로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하고 있는 등 동사는 사업 초기부터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적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표 2] 연구개발비용 투자 현황(연결포괄손익계산서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반기
연구개발비용 총계	101	129	75	2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 ÷ 당기 매출액 X 100]	1.07%	1.37%	0.79%	0.03%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1년 6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표 3]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구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합계
	국내(출원 중)	국내	국내	
보유 건수(개)	87(18)	1	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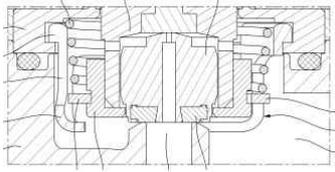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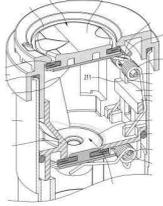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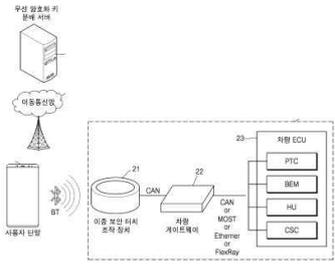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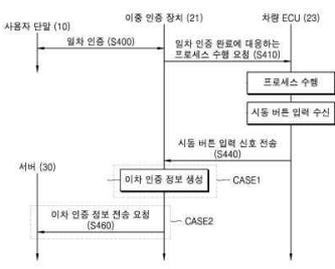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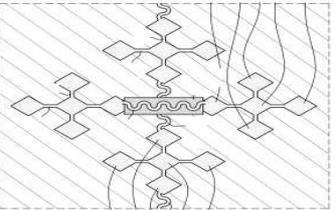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표 4] 최근 3년 국가 연구과제 현황

국가 연구과제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160KW급 고성능 전기자동차용 6상 동기전동기타입 EPT모듈 개발	• 프리프래그 성형해석, 블랭크 기술 개발 및 NIR(Near Infared Ray) 시스템 확보 등
x-EV용 Smart Type e-Parking Shift Module 기술개발	• 초임계유체 적용수지 사출성형 CAE 기술 구현 및 발포 금형 설계 기술 개발 등
고효율모터 및 열관리모듈이 탑재된 150kW급 integrated EPT Module 개발	• 변속기용 DRUM 37R&46 클러치 부품 제조를 위한 금형 설계 및 공정설계를 위한 성형해석 등
디젤엔진용 소형/원가 절감형 흡기 통합 제어 LP EGR 모듈 개발	• Seat Side Frame 냉간성형 금형기술 및 Dru, Clutch 냉간성형 금형기술 개발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용 다중 모드 입력 UI 모듈 기술 개발	• 프리프래그 성형해석, 블랭크 기술 개발 및 NIR(Near Infared Ray) 시스템 확보 등
영하 결빙조건에서 작동 가능한 밸브 및 센서개발	• 초임계유체 적용수지 사출성형 CAE 기술 구현 및 발포 금형 설계 기술 개발 등
자율주행차 제어를 위한 스마트폰 연계형 터치 조작계 이중 융합보안 기술개발	• 변속기용 DRUM 37R&46 클러치 부품 제조를 위한 금형 설계 및 공정설계를 위한 성형해석 등
전기 자동차의 구동 효율 향상을 위한 2단 변속시스템 개발	• Seat Side Frame 냉간성형 금형기술 및 Dru, Clutch 냉간성형 금형기술 개발

*출처 : NTIS,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표 5] 최근 1년 내 등록된 특허 핵심 내용

명칭	특허 도면	기술적 효과
탄성 조절부를 구비한 연료전지용 솔레노이드 밸브 및 이를 포함하는 연료 공급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료전지용 솔레노이드 밸브에서는 탄성부재가 장착되는 위치가 고정됨에 따라 스프링의 압축하중이 필요이상으로 커지는 경우 솔레노이드 밸브에의 전력소모가 증대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효과가 있음.
자동차 연료시스템의 필터백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터백 장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며 향상된 심미성을 가질 수 있고, 주유 시 연료캡을 분리하는 동작을 생략할 수 있어 연료캡을 분리하는 과정에 손이 오염되거나 연료캡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차량용 이중 보안 제어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장치 및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주행차의 보안 약점을 강화하여 차량 오동작 및 정보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사용자 단말과 연계되면서도 터치 조작계를 기반으로 한 다중 보안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차량의 인증 장치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적 사상에 따른 차량의 인증 방법은 사용자의 단말과 차량 내의 사용자 입력 장치를 이용한 이차인증을 포함하여, 허가되지 않은 타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거리에서 차량의 도어를 연락한 후 타인이 차량에 불법적으로 탑승하여 차량을 탈취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음.
스티어링 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티어링 휠은 터치 감지부는 운전자가 손으로 파지하는 영역에 배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을 이용해 주행방향을 제어함과 동시에 터치 감지부를 통해 터치 명령을 입력할 수 있음.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동사의 ESG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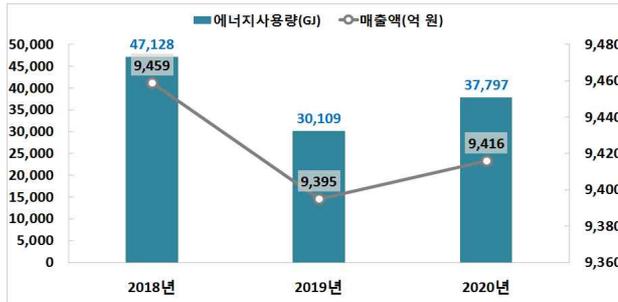
(E) 환경 부문

동사는 환경(대기, 수질, 폐기물, 폐수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기반 환경경영 전담조직(친환경사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침 및 목표 수립, 모니터링 실시, 환경 및 안전, 보건을 핵심 주제로 하여 오염방지, 자원이용, 안전보건, 작업환경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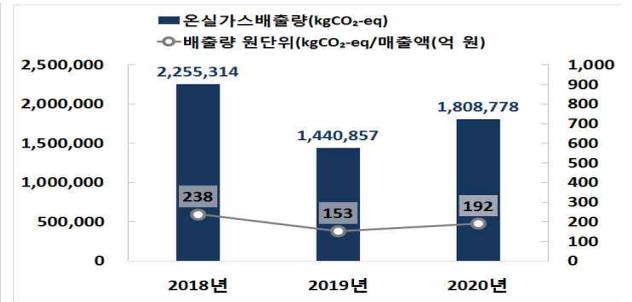
기후변화대응 측면에서 에너지 사용은 전기가 대부분이며, 동사의 2020년 에너지사용량은

37,797GJ, 온실가스배출량은 1,808,778kgCO₂-eq로, 2018년 대비 감소하였고, 온실가스배출량 원단위가 2018년 238kgCO₂-eq/매출액(억 원)에서 2020년 192kgCO₂-eq/매출액(억 원)로 약 19.43% 가량 감소하였다.

[그림 10] 연도별 에너지사용량 및 매출액



[그림 11] 연도별 온실가스배출량 및 원단위



*출처 : 동사,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S) 사회 부문

동사는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ATF 16949(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 기반 산업안전 및 품질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직원 수가 2018년 말 479명에서 2020년 말 484명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강소기업으로 등록되는 등 고용성과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차별금지, 인권존중을 중시하는 경영 원칙에 따라 수년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없이 정규직으로만 채용하여 사회적 책임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삼보문화재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체육단체, 문화예술인 육성, 문화사업, 문화예술 교류, 전통문화 사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G) 지배구조 부문

2021년 6월 말 기준 최대주주는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이재하로 자동차부품 제조에 대한 풍부한 기술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기술경쟁력과 품질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배당을 실시한 내역이 없고 정보공개와 주주 권익보호 측면에서 ESG 관련 정보 공개는 부족한 수준이나, 상장회사로서의 공시 의무를 준수하며, 소통 채널 다양성 확보, 정보접근 등의 권한을 준수하기 홈페이지에 최신 소개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하나금융 투자증권	Not Rated	-	2021년 3월 19일
	· 2021년 매출액/영업이익 +4%/+75% 전망 · 전기차 배터리 및 수소연료계통 사업을 계획 중 · 신사업의 실행과 성과가 중장기 주가 방향성을 결정		